

7년 만에 고향서 무대 갖는 '뉴욕 현대무용의 大母' 김영순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몸짓 만나게 될 터”

화이트웨이브김영순무용단 '이터널 나우' 6-7일 ACC 예술극장 극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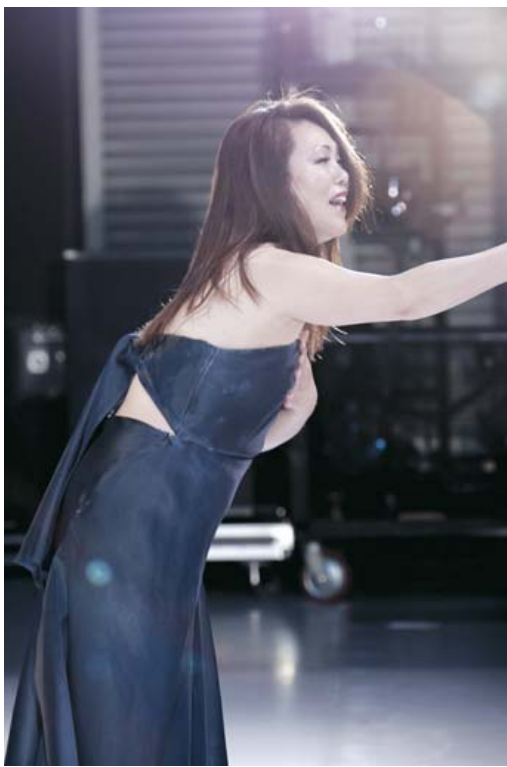
광주서 美무용수들 춤 선보일 수 있어 영광
한국인 최초 뉴욕 BAM 선정작 ACC 공연
과거-현재-미래 인간 감정 내면 표현 초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12년 공연을 올린 후 7년 만에 광주 관객들을 만나 뵙게 됐네요. 저와 함께 성장한 화이트웨이브김영순무용단의 '이터널 나우'(Eternal Now)를 고향에서 선보일 수 있어 정말 영광이죠.”

'뉴욕 현대무용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재미 안무가 김영순(65)은 젊은 시절에는 뉴욕을 놀라게 한 '검은 머리'의 춤꾼이었다면, 지금은 최고의 안무가이자 호랑이 선생님이어서 미국 무용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롯이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그가 2014년 뉴욕 브루클린뮤지카카데미(BAM·Brooklyn Academy of Music) 선정작인 '이터널 나우'로 고향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최근 ACC 예술극장 아틀리에에서 만난 김 안무가는 전날 긴 비행에도 지친 기색 없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장 먼저 표했다.

“중앙여중과 광주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무용과로 진학했어요. 대학 졸업 이후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줄곧 활동했지만, 광주는 생각



화이트웨이브김영순무용단 예술감독인 재미안무가 김영순

만으로도 편안한 제 고향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김 안무가는 수많은 프로필을 자랑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낳았던 1977년 도미해 1980년 뉴

욕 10대 명문 무용단인 제니퍼 몰러 현대무용단의 오디션에 300대 1을 뚫고 전속단원이 됐고, 1983년엔 작품 '살'(Alive)으로 뉴욕주예술위원회에서 안무상을 받았다. 1988년엔 화이트웨이브김영순무용단을 창단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9회에 이르는 뉴욕 댄스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오롯이 춤만을 위해 뉴욕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어요. 생활비를 위해 기회만 되면 다치는 대로 무대에 섰죠. 그때의 기억들이 자신이 돼 제 프로필을 완성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이력들이 아닌, '인간 김영순', '춤꾼 김영순'으로 남고 싶은 게 제 바람이죠.”

광주에서 선보이게 되는 무용극 '이터널 나우'는 김 안무가가 2010년부터 작업해 온 대표작 '히어 나우'(Here Now)의 네 번째 시리즈이자 마지막 버전이다. 이 작품은 2014년 미국 공연예술센터 BAM에서 초연됐으며, 150년의 BAM 역사상 최초로 선보인 한국인 안무가의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히어 나우’ 시리즈 중에서도 '이터널 나우'는 정말 미친 듯이 사로잡혀 안무를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기대감, 슬픔, 분노 등을 9명의 무용수가 몸짓으로 풀어내게 돼요. 특히 이 몸짓들은 무대 뒤편 스크린의 라이브 영상과 맞물려 상연됩니다. 실제 몸짓과 스크린 속 움직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겹쳐지면서 관객에게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이터널 나우'의 음악작곡 및 연주는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뮤지션의 선두주자인 마르코 카펠리의 어쿠스틱 트리오, 영상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케이티 프레이와 하오 바이가 담당했다.

김 안무가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터널 나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동시대 무용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터널 나우'는 그야말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가 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새로운 몸짓의 향연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연은 6-7일 오후 7시30분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쳐진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8세 이상 입장 가능.

한편, 화이트웨이브김영순무용단은 1988년 김영순 안무가가 창단했으며, 무용단 운영 외에도 페스티벌 개최, 교육사업, 극장 운영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 중이다. 3년 연속 뉴욕시 문화국의 지원 단체, 수년간 브루클린을 빛나게 하는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정겨울 기자



'내뱃소리민족예술단'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2019광주마스터즈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국악상설공연도 함께 합니다

6-11일 광주공연마루

광주국악상설공연이 '2019광주마스터즈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과 함께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 창작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오는 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월요일 휴관) 광주공연마루에서 공연한다.

먼저 6일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문을 연다. 2008년 창단 이후 각국의 민족음악을 연구, 기록하며 연주해온 예술단체이다. '국악 새로이 날다'란 주제로 1부 명인명창, 2부 퓨전국악을 공연한다. 1부 명인명창공연에서는 피리명인 김광복의 '매나리를 주제로 한 피리독주곡',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비롯해, 한국 무용가 서영의 '살풀이', 강민지 명창의 '신연맞이'를 공연한다. 2부 퓨전국악공연에서는 전통국악양상을 놓음판이 출연한다.

7일은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광주호남지부가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정악, 대취타, 궁중무용)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을 연주한다.

8일은 내뱃소리 민족예술단이 공연한다.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가 국악

관현악과 어우러지는 협주곡 '태평소 관현악과 한량무', 생활협주곡 '풍향(風香)',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북녘노래 '어서 열자 통일의 문', '임진강', '하나됨의 꿈' 등을 선보인다.

9일은 한국판소리 보존회 광주지부가 창곡 '황후 심청'을 무대에 올린다. 가장 극적인 대목을 중심으로 심청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심청전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 '아름다운 금수강산', '심봉사 딸을 그리워하다-뽕떡이네와 만남', '가을 달 가득한다-황후가 되어 부친을 그리워하는 심청', '심봉사 황성가다-뽕떡이네와 황성 땀인잔지를 가는 심봉사', '방아타령-방아를 찧고 있는 아낙네들을 만남', '심봉사 눈을 뜨다-심청과 재회' 등으로 구성된다.

10-11일은 타악기의 흥과 신명을 풀어내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공연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공연은 광주만의 멋과 한을 잊고 풀어내고, 광주의 평화와 희망을 염원하는 뜻을 담았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고,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 또는 전화(062-613-8379)로 가능.

/정겨울 기자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창의력 쑥쑥! 북아트'

광주문화재단문화예술작은도서관

광주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창의력 쑥쑥! 북아트' 강좌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좌는 북아트의 기본 개념을 배워보고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등 어린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조은경 북아트 전문지

도사가 맡는다.

강좌는 오는 10일 개강해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내 문화프로그램실에서 총 4회 진행된다. 수강대상은 초등학교생(1-4학년)이며 선착순 15명, 수강료는 무료. 수강 희망자는 7일까지 방문접수(광주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7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하면 된다.

/정겨울 기자

비타민나무 계약재배

3.3m²(1평)당 4~6萬 소득



1. 비타민나무는 화학비료나 농약살포가 필요 없어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재배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천연비타민 원료로 제약, 식품, 화장품의 원료 납품하며 천연비타민 정, 비타민 차, 비타민 음료, 비타민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수확되고 있는 당사 농장 견학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나무재배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제품 및 원료를 개발하는 유망중소기업입니다.

선착순!

생산 모목량 한정

식재시기: 10월 말~땅이 얼기 전

강원비타민나무
영농조합은

육묘생산

모목공급 기술지원

계약 재배자
수확한 열매는

영농조합에 납품

연구개발

원료생산

제품생산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45번길 69-14 www.비타민나무.kr 033)241-8282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